

전남 동부권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날갯짓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의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도약' 기반을 마련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국제행사 유치, 관광 활성화, 대형 SOC 확정, 친환경·첨단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지난 8월 2026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국제행사로 확정돼 전남도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섬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됐다. 30개 나라 200만 명이 방문, 6,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4,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전망된다. 2023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연이은 국제행사 확정 쾌거다. 동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국

민선 7기 들어 국제행사 유치·SOC 확정

순천·보성만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제정원박람회의 재현이 기대된다.

전남 동부권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안의 섬·갯벌 등 자원이 무궁하고, 전남 미술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도립미술관 등 생태·관광·문화자원의 보고다. 지난 7월 순천·보성 갯벌이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전남도는 다도해습지정원, 갯벌 통합관리 센터 등 유치를 발 빠르게 준비해 갯벌의 보존과 활용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3월엔 전남 미술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남도립미술관이 광양에 개관했다. 문화를 향유하는 참여와 소통 공간으로,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물론 시설, 규모 면에서 수도권 미술관과 견줘 손색이 없다. 또 지리산에 '영호남 도서내륙 관광벨트'를 조성해 지리산 터널, 케이블카 등 영호남 광역관광 SOC를 구축하고, 섬진강에 숙박단지과 테마파크 등을 포함한 섬진강권 복합휴양관광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

이다.

전남 동부청사도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 열린 청사로 구축해 미술작품 전시, 공연 등 동부권 공동체의 중심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대형 SOC가 국가 계획에 대해 반영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남해안 남동권 거점도시 기반도 구축되고 있다. 최근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과거 1시간 30분 소요됐으나 앞으로 1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다. 해저터널 자체가 랜드마크 시설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영호남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이 기대된다.

6월에는 전라선고속전철이 국가계획에

반영, 서울-여수를 38분이 단축된 2시간 7분대에 주파하게 돼 '무늬만 고속전철'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이밖에 여수-고흥 백리섬섬길이 완공됐으며, 곡성 석곡 IC-겸면 국도 위험구간이 설계 중이다.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도 오는 10월 착공 예정이다.

동부권 산업 전반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전통 주력산업인 화학·철강 산업에 2024년까지 1조 1,364억 원을 들여 노후 산단을 친환경 산단으로 대전환한다. 광양만권은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고흥은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전남 동부권은 화학·철강 등 주력산업과 항만·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했으나 정부 지원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민선7기 들어 SOC, 산업, 관광 등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어 지역발전 기대가 크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동부권의 다양한 도정 성과는 주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로 이뤄진 값진 결과"라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되도록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남해안 남동권에 유치해 전남을 대한민국 신해양·관광·환경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상임위 소관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내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해남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청신호

내년 정부 예산안에 김치원료공급단지 설계비 반영

김치의 보고장 전남도가 해남에 추진하는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예산안에 '김치원료공급단지' 지원 사업 설계비 4억 3,500만 원이 반영됐다.

단지에 들어설 주요 시설은 물류거점시설 9,900㎡, 절임배추 생산시설 3,300㎡ 등이다. 농식품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지역을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생산비 절감형 스마트 김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고 품질의 김치를 생산·수출하고 수입산 김치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480억 원 규모의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꾸준히 건의했다.

김치의 세계화와 국산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시급하다. 김치 수입량은 2017년 27만 톤, 2018년 29만 톤, 2019년 30만 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산김치 평균가격은 kg당 2,872원인 반면 수입산 김치 가격은 kg당 863원으로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치생산전문단지가 조성되면 배추 등 원료 저장 확대와 스마트 가공시설 설치 등을 통해 기존 생산비의 약 3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수입산 김치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국산김치 확대를 위해 김치·절임배추 생산시설 현대화, HACCP시설, 스마트 HACCP,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등을 지원해 김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남은 김치 주재료인 배추와 부재료인 대파, 마늘, 천일염, 젓갈 등 전국 제1위 생산지역이다. 배추김치를 포함해 갖김

치, 백김치, 양파김치, 고들빼김치 등 다양한 김치를 생산하는 도내 업체도 110 곳에 달한다.

특히 해남은 가을·겨울배추 재배 면적 4,995ha로 전국의 29%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천일염과 대파, 마늘, 양파 등 부재료를 생산한다. 절임배추 생산업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782곳으로 원료 수급이 쉽다. 무안국제공항과 목포항 등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김치 전문생산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22년 농식품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해남에 김치 전문생산단지를 유치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김치 중추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치 보고장 전남에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해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김치를 생산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담

성공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을까지!

- 일자리 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청년창업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자금상담 등
- 청년창업 허브 사업**: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 마을공방 운영사업**: 공방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방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동구창업지원센터
 Tel : 062) 608-3991 ~ 2
 Fax : 062) 608-2719

주목받는 광주시의회 조례

지역출판 활성화 위한 정책개발·지원

김나윤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출판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지원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출판 산업이 수도권중심의 문화발달로 위축되어 가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방안이 절실하다"며 조례 발의배경을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자치구 및 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게 했다.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과 지역 양서출판 장려사업, 간행물 유통정보화 사업 등의 지역출판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출판은 지역문화콘텐츠 생성자로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실패해 가는 지역출판이 다시 활성화되고, 지역문화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법적 토대 마련"

임미란 '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제정

광주시 청소년 한부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및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국민은 평등에 걸쳐 학습하고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따른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등 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감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신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때에는 인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기간에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교육감은 이들을 위해 대학입학지원금, 장학금, 교육기회 제공 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라는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